

# 마스크의 심리학



박 도 현  
교수 · 후마니타스칼리지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감염될 정도로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요즘 주변에서 확진자를 찾아보는 건 너무 흔한 일이어서 이제 지인이 확진되었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동요 없이 무덤덤한 감정을 갖게 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 바이러스는 우리와 아주 익숙해졌는데, 그와 함께 친숙해진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마스크 착용이다. 처음에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게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팬데믹은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상황과 환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음으로써 감정을 탐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하게 된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Paul Ekman)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정서를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정서 표현은 인종과 문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각각의 정서마다 고유하고 독특하게 표현되는 이 얼굴 표정을 보고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게 된다.

COVID-19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요즘은 사람의 얼굴 표정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사람들의 정서 탐지 능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 밤베르크 대학의 심리학자인 클라우스 크리스천 카본(Claus-Christain Carbon)은 마스크 착용이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감소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다. 그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여섯 가지 감정 상태(분노, 혐오, 두려움, 행복, 슬픔, 중립)를 나타내는 얼굴 사진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와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인물로 제시하는 두 개의 조건으



마스크 착용이 인간의 매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진=피사베이)

로 나누어 보여줬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감정 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는지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중립적인 얼굴을 제외한 모든 감정 상태에 대한 인식 능력의 정확도가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의 사진을 보는 조건에서 감소했다. 중립적인 표정의 인식 능력은 마스크 착용 인물을 보는 조건에서 저하되지는 않았지만, 행복,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 상태를 중립적인 표정으로 오해하는 비율이 마스크 착용 인물 조건에서 증가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상대방이 얼굴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는 데에 방해받을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심리적인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신생아는 일반인의 생각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엄마와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신생아가 행복, 슬픔, 놀라움과 같은 다양한 감정 표현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는 단지 며칠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5세 아이 정도만 되어도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만약

부모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야기의 유대감과 애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두뇌 발달에는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발달적으로 중요한 영유아 시기에 엄마가 마스크를 상시로 착용할 경우 두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영유아 발달상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과학적 입증이 쉽지 않아 즉각적으로 그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이 결과로써 확인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지나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 및 주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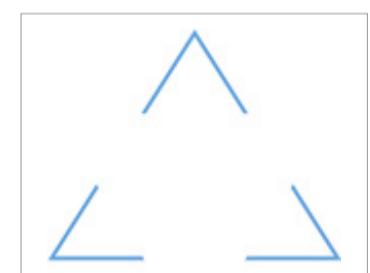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이 인간의 매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스크 착용이 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았다. 문화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병에 걸렸거나 신체적 나약함의 증거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과 환자를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

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 선입견은 희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인물에 대한 매력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카디프 대학교 심리학과의 올리버 히스(Oliver Hies)와 마이클 루이스(Michael Lewis)는 간단한 실험을 실시했다. 여성 실험참가자들에게 남성 인물의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다. 남성 인물의 사진은 얼굴 전체를 드러낸 사진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 그리고 노트북으로 마스크처럼 얼굴 하반부를 가린 사진 등으로 조건을 다르게 했다. 실험 결과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얼굴 전체를 드러낸 사진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팬데믹으로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은 이러한 부정적 편견을 상쇄시켰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사람들의 매력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심리학적 요인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의 '채워 넣기' 기능 때문이다. 뇌의 지각시스템은 일부 정보만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채워 넣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 그림을 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많은 독자들이 그림에서 삼각형을 볼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자극 수준에서 이 그림에는 온전한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뇌는 비어있는 부분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채워 넣는 능력을 발휘한다. 게슈탈트(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극의 전경과 배경보다 전체적인 맥락 또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뇌의 채워 넣기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 하굣길에 맞은편에서 마스크를 쓴 매력적인 이성이 걸어온다면 그의 얼굴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라. 여러분은 마스크 너머 가려진 얼굴을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평소 이상형으로 희망하고 있는 미남, 미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지각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